

성전에서 비취는 빛



8과 2024년 5월 25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히 8:1, 2)

70주와 2,300일 예언을 해석해서 얻은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 해석을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새로 발견한 사실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8장 14절과 다니엘 7장 9-10절의 심판이 같은 것이라면, 정결하게 되어 할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소인가? 그리고 어떤 심판이 1844년에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  참 성소.
-  (성소의) 정결.
-  심판.
-  은혜와 정의.
-  변호인이자 중보자.

참 성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 8:2)

정결하게 될 성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면 어디 있을까요?
1844년에 실망을 겪은 재림교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두 개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소는 참 성소를 본 따서 만든 모형이자 그림자 (히 8:5)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 성소 (히 8:2)

첫 번째로 만든 성소와 서기 70년까지 이어진 성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형을 따라 건축되었습니다(출 25:40). 이 성소는 참 어린양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요 1:36; 히 4:14).

첫째,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아 주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롬 5:8).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하시며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히 7:25).





(성소의) 정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레. 16:16)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의 죄는 성소로 “ 옮겨 ” 졌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대 속죄일에 정결해 졌고 오늘날에도 히브리인(유대인)들은 그 날을 심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레. 23:27)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레. 23:28)

대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앞에 나아갔습니다 (레. 16:12-13)

성소와 휘장 그리고 금 제단은 속죄제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레. 16:15-19, 33)

다른 한 살아있는 염소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레. 16:20-22)

마침내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레. 16:30)

대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 끊어지게 ” 되었습니다(레. 23:29-30). 그날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 우리 각자의 운명도 결정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이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하는 심판의 날입니다(히 3: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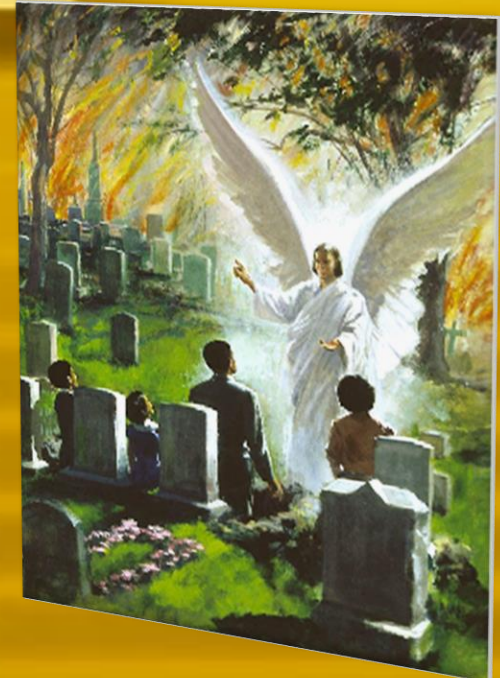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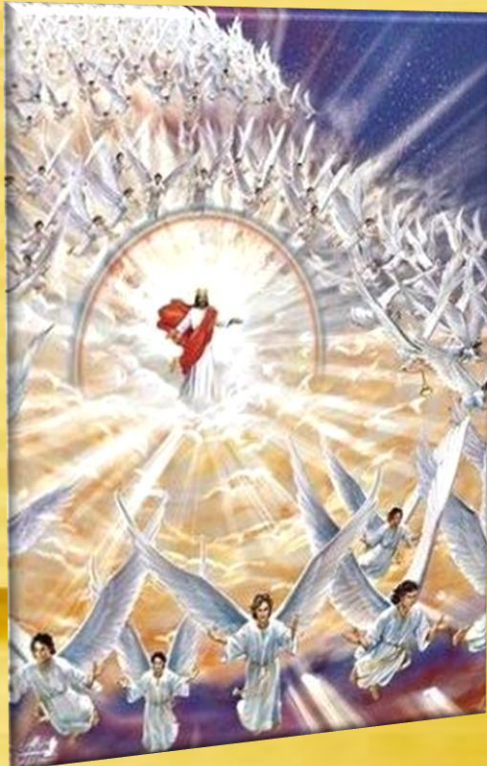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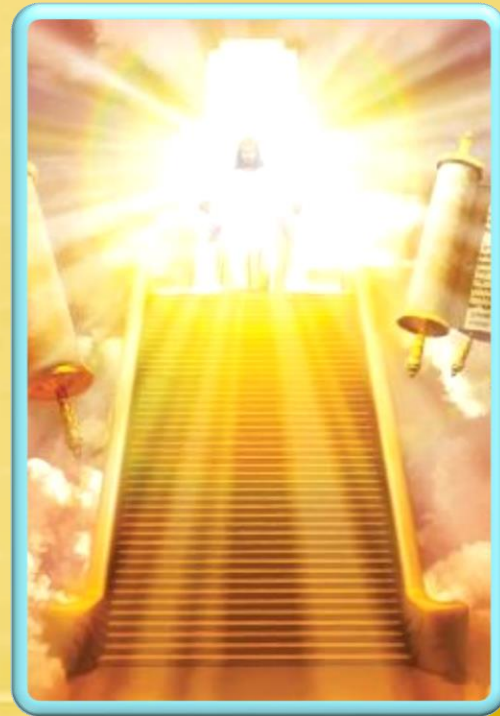
심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7)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 성소의 정결, 곧 심판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재림교회는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기별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요? (대상 16:33; 딤후 4:1)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미 끝낸 판결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계 22:12). 그분은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고 (마 24:31)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살전 4:16).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지 않고 그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계 20:4-5).



은혜와 정의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사 16:5)

속죄단 안에 있는 십계명은 심판의 기준, 즉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전 12:13-14).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놓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은혜)를 상징합니다(요일 2:1-2).

예수님의 피가 번제단
위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하늘
성소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정의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자비(은혜)는 우리의 삶 대신에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받아줍니다 (벧전 1:18-19).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요일 4:17).

예수님의 피가 분향단
위에 뿌려집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의 피가 속죄단
앞 휘장에 뿌려집니다



우리의 삶이 재판장
앞에 제시될 때
마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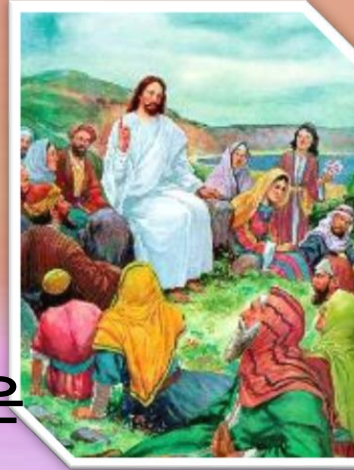


변호인이자 중보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5)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굶주린 세상과 그분을 지켜보던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손을 벌리는 사람들은 모두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마침내 심판 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편이시고 강력한 변호인입니다 (요일 2:1).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어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엄청난 대가
-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곧 심판이 끝날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때는 죄를 대신 짊어지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히 9:28)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록책들을 열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가장 먼저 창조되었던 사람들을 시작으로 그 후의 세대 사람들까지 그들의 삶을 하나씩 제시하시고 마지막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십니다. 모든 이름들이 언급되고 모든 사건들은 면밀히 조사됩니다. 받아들여지는 이름도 있고, 거절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에 용서(사면)이라 쓰여지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고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잘 어울린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의 죄는 지워지고 영원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 바깥뜰에서 기쁜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의 미덕(미담)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분만이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단 한 분께 기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엘렌 화잇 (우리의 대변자 예수님, 11월 1일)